

“계속 하면서, 이렇게 말 하였다: ‘하늘 나라가 가까워 왔다.’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 주고, 마귀들을 쫓아 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 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보따리도 여벌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치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마태 10:7 - 13)

프란치스코는 이 문구로 인하여 그의 삶이 완전히 바꾸어 진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다. 복음 말씀 ... 복음적 삶... 확실해진 그의 사명. 그로 인해 그는 전에는 예상치도 못했던 완전한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다.

이 성서 구절을 듣는 것 만으로도 프란치스코에게는 회개를 위한 확실한 전환점이 되었다 - 우리가 세 번씩이나 가졌던 환상적인 모임에서 받았던 메시지 또한 그러하였다. 내가 아무리 환상적인 이 사건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를 불러 주시고 임무를 맡겨 주셨다는 인식을 새롭게 느낄 수 있는 특전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임무에도 또한 시점이 주어졌다. 각 시점에 따라 적절한 응답을 주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간이 감에 따라 성장과 발전은 계속 될 것이고, 따라서 국가 형제 회에 새로운 활력이 주어질 것이다.

우리 역사가 방향을 형성해 준다

새로운 회칙이 반포된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돌이켜 보자. 지난 역사를 돌이켜 봄을 통하여 지나간 발 자취를 거쳐 우리가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크게 될 것이다. 이 개혁안에서 하느님의 역사하심이 반영되어 들어날 것이고, 새로운 회칙이 시행된 때부터 일어난 개혁이 보일 것이다.

- 1968 - 1978 바오로 회칙의 발전
- 1972 - 평신도 프란치스코 의회 (the Q)가 발표한 성녀 끌라라 성명서
- 2000 - 회헌
- 2002 - 2008 CIOFS “양성 담당자에게”
- 2012 - Q - 다리 역할을 하라
- 2014 - 빌 솔 형제와 함께 한 국가연수회
시대의 표징/ 프란치스코 교황
- 2014 - CIOFS 수도회 경영진이 추구한 “수도회의 충분한 발전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2016 - Q - 재생
- 2017 - CIOFS - 수도회 경영진의 참고/총회의 조건
- 2017 - 청소년 전망
- 2018 - 양성의 전망
- 2019 - 부활을 주는 모임에 관한 건
- 2019 - JPIC 전망

이상의 제반 안건들은 우리 수도회에 깊은 영향을 주어왔다.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음을 이해하면, 과거를 돌아볼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걸어온 크나 큰 발자취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성령께서도 계속 활동하고 계신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재생의 길로 계속 가도록 이끌어 가고 계신다. 우리는 이것을 지난 날의 출발점에서, 활동과정과 오늘 날의 이루어 낸 성과 안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과들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 위원회가 세밀하게 발표하였으며, 특별 분야에 임명된 위원회나 개인의 활동이 말해 주고 있으며, 여기서도 첨가하는 바이다. 또한 훌륭히 이루어진 성과들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난 총회에서도 발표하였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